

<황금빛 내 인생>에서 나타난 가족관계 해체와 재구성

김준

에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Dismantling and Reconstruction of Family Relationship as Revealed in “My Golden Life”

Joon Kim

The Faculty of Liberal Arts, Yewon Arts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이 논문은 한 가정에서 나타난 가족관계의 형성과 분열과정의 원인과 결과, 관계회복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작품으로는 2018년 상반기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인 드라마<황금빛 내 인생>을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이 드라마에서 나타난 한 가정을 중심으로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부머세대, 그 이후 세대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는 가족관계에 대한 세대 간의 부담과 갈등, 그리고 책임감은 가부장적인 일방적인 관계였다. 이러한 관계는 부담감으로 얽혀있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해체하였다. 가족 간의 관계단절은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해체된 관계단절의 회복은 개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먼저 정립된 후 이루어지는 쌍방향성 관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가족, 세대, 관계, 단절, 주체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formation and division process of the family relationship and the meaning of the restora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that appeared for the baby-boomer generation, the eco-boomer generation, and the subsequent generation which represent the reality of the time involved.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a family that reflects the current age in the drama "My Golden Life" which showed the highest audience rating in the first half of 2018. As a result, the burdens, conflicts, and responsibility of the generations about family relations appeared as unilateral relations. It cut off the entangled relationship and dismantled it. However, the disconnection of the relationship played a role in recovering the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from the bridle of the family. As it turned out, the restora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was possible in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after the self-esteem and identity of the individual was established first.

Key Words : Family, Generation, Relationship, Disconnect, Subjectivity

1. 서론

가족은 가장 원초적인 생활공동체이다. 그들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애착에 기반을 둔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1]. 전통적인

가족은 정서적 교감과 경제적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확대가족의 구조였으나, 195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전통 가족구조인 확대가족 구조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발전의 주축이었던 베이비부머세대는

*Corresponding Author : Joon-Kim (sulsong3@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2,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October 29,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경제 위기와 회복기를 거치며 힘든 상황에서 희생정신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했다.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는 그들에게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상실과 역할의 감소가 나타난다. 이것은 에코부머세대에게 우울감과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현실이다[3]. 베이비부머세대가 낳은 자녀세대인 에코부머세대는 융복합시대의 흐름에 다양한 미디어와 SNS를 통해 사회전반의 중심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세대이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부머세대는 베이비부머세대와는 달리 세계 경제위기와 국내 경기침체 등 경제난 속에서 사회진입에 난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10]. 이러한 청년취업난과 경제적 격차는 부모의 능력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부에 따라 자식의 계급이 결정된다는 수저 계급론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이렇게 금, 은, 동, 흙 수저 같은 수저 계급론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관계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가족은 개개인의 삶의 방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이룬다. 그러므로 가족의 붕괴는 사회기본바탕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현실에서 세대간의 갈등과 서로 다른 욕망은 그들의 가족관계를 해체하고 고립시킨다. 해체된 가족관계가 가지고 있는 원인과 가족관계의 회복에 관한 지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필요성

본 논문은 드라마에서 나타난 가족관계를 통해 세대간의 모순과 갈등 그리고 회복에 대한 논의를 세대별로 분리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작품으로는 <황금빛 내 인생>을 선택하였다. 이 드라마는 취업·결혼·가족 관계에서의 고민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었다. 이 드라마의 소재는 시청자에게 익숙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토리이다. 이는 세대를 불문하고 시청자에게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공감은 시청자들을 드라마속의 사건들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시청자들의 감정입은 드라마의 스토리에 따라 같이 동화되어 희노애락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드라마 주인공의 매력에 빠지면 악한 일을 한 주인공에 대해서도 많은 관대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바로 드라마 속의 인물에게 자신을 투영시킨 결과이다. 이 드라마는 한 가족에서 다양한 세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도 자신들의 세대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몰입한다. 결국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통하여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논란과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가족관계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황금빛 내 인생>의 주요 플롯은 중산층에서 몰락한 한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핵가족인 이 가정은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발전할 당시에는 가장의 성공으로 부유한 중산층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이 경제 불황기인 시점에서 사업체 부도 등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시청데이터 결산 종합 분석을 프로그램별 전체 회 차를 평균하여 집계한 결과 KBS '황금빛 내 인생'이 39.3%로 1위를 차지했다[14]. 이렇게 많은 시청률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시청자들의 욕망과 트라우마, 그리고 동시대의 사회 문화 현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층 가족에서 나타난 가족관계 형성과 분열과정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가족이 다시 화합되었을 때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3. 현대 가족의 의미와 현황

현대 사회에서 가족 형태는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핵가족,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 입양가족과 동거부부, 무자녀 가족, 계약 결혼, 실험 결혼, 공동체 거주, 비동거 가족, 원격 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끌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핵가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한 쌍의 남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핵가족은 남편과 부인, 그리고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는 권위와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상적인 가족 관계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1,2]. 이렇게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안정감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사회재생산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가족관계의 발전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 유입된 가치로 직업적, 사

회적, 경제적인 변화와 같이 가족구성원들도 변화를 세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세대적 개념

3.1.1 베이비부머세대 1955-1963년

1955년대에서 63년생으로 6.25전쟁 이후 대량 출산으로 태어난 세대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과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의 소비지출은 자녀 양육비와 자녀 결혼자금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신을 위한 투자와 노후준비는 부족한 세대이다[6]. 베이비부머세대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상용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8] 베이비부머세대는 핵가족 형태의 생활방식과 가부장적 신념, 그리고 도구적 가장 역할에 중점을 둔다.

3.1.2 에코부머세대 1979-1992년

1979년대에서 1992년생으로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를 말한다. 부모세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란 에코부머세대는 전체 75.8%가 2년제 이상 대학교육을 받을 정도의 비교적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낸 세대이다. 이 시기는 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매체의 변화로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하고 많은 자격증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대다수는 비정규직 및 시간제 일자리 등 불안정한 취업 상태를 겪고 있다. 취업과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그들에게 연애, 결혼, 출산에서부터 집과 경력, 그리고 희망,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괄한 N포세대로 나타난다[12,15]. 에코부머세대는 실업으로 인한 분노, 좌절, 불안,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한 자립능력의 저하, 가족관계에서 상호작용 회피,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감을 형성하는 문제점을 나타낸다[7]

3.1 에코부머세대 이후 (1993년 이후)

에코부머세대 이후의 세대는 학력보다는 능력과 실력에 더 가치를 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세대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온라인에서 정보교환 등 가상공간을 잘 활용하는 세대이다. 이 세대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며 참여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9]. 하지만 심리적 복지감은 온라인상의 관계

보다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10]. 그러므로 오프라인 사회관계의 기본구조인 가족관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세대에서도 깊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교육적 측면에서 이 세대를 보면 과거처럼 학벌이 중요시 여기는 세대는 아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일찍 취업을 준비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기 개발을 하며 학업을 유지할 때나 그만둔 경우에서도 자아존중감에 대한 차이가 없었다[11]. 이러한 점들은 융복합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경제적 지식과 습득을 필요로 하며, 그것이 세대의 주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대이다[13].

4. <황금빛 내 인생> 분석

4.1 가족

4.1.1 베이비부머세대의 가장 서태수 62세

서태수는 자수성가로 중산층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사업체의 부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인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제위기를 겪는 전형적인 베이비부머세대이다. 그는 가부장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전형적인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일용직 막노동 등을 전전하면서도 한 가정의 중심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한다. 그는 삶의 가치를 자신과 자식들을 부양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데 두고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이 지지도를 중요시 한다. 그가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체면과 가족에 대한 배려로 나타난다. 또한 가족의 진화를 받는 그의 행복한 모습은 가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온 것은 가족에게 더 이상 가장으로서 신념과 권위가 무너져 더 이상 신뢰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가족구성원 모두가 자신에게 의지하던 상황에서 더 이상 가족구성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상암을 만들어낸다. 이 상상암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이제는 가족보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고립된 삶의 형태를 보인다.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죽을 장소로 이동한다. 그에게 있어 가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그의 폐쇄된 정체성은 가족들의 진심어린 관심으로 회복된다. 가족구성원들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관계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가족구성원들이 암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여준 세심한 배려와 사랑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그가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선물과도 같은 인생의 결말을 준비하고 모든 가족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죽음을 맞이한다.

4.1.2 베이비부머세대의 아내 양미정 57세

양미정은 서태수와 결혼으로 중산층의 삶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남편의 부도로 인해 서민층으로 전락하게 된 평생 전업주부이다. 그녀는 집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다른 이들과 항상 비교하며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다 계약직으로 있는 딸의 아픔을 목격한 그녀는 자신의 딸을 재벌가 딸로 행복하게 살라고 보낸다. 지금 환경에 만족해하는 재벌 딸보다 열심히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자신의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과장을 만들어 내는 원인을 제공하는 캐릭터이다. 이 사건은 전업주부인 그녀를 체인점 사장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그동안 소극적이고 불만에 가득하고 우울한 그녀를 희망에 부풀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킨다. 하지만 거짓말이 탄로 나면서 그녀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죄책감으로 더 이상 아내와 부모의 역할이 아닌 눈치만 보는 삶으로 전락한다. 의지하던 남편과 가족의 무시, 그리고 꿈꾸던 희망이 사라진 체인점 운영 등으로 압박감에 사로잡힌다. 현모양처를 꿈꾸며 살아가던 그녀는 경제적 압박감으로 가족구성원들 중 특히 남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없는 역할로 나타난다. 모든 원인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된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남편에게 미워 버린다. 이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의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녀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삶에서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 당연시 되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어필한다.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할머니로서 아이의 육아를 스스로 자처하는 역할을 한다.

4.1.3 에코부머세대 서지태 33세

서지태는 서태수의 장남으로 에코부머세대, 혹은 N포세대이다. 그는 4년째 결혼 없는 연애만하는 은행원이다. 그는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

고 포기한 세대이다. 가세가 기울어진 집안의 장남으로서 동생들에 대한 부담감이 무겁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나타나고 자신의 입장에서 피해자로 인식하게 한다. 이는 미래와 삶에 대한 희망이 없는 자신이 결혼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연인과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한다. 결국 그는 다시 연인을 만나서 사랑으로 인해 결혼을 선택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혼전서약서를 작성한다. 그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모세대와 같이 거주하는 현실적인 측면을 보인다. 그는 신뢰가 무너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부인에게 부끄러워하며 그의 가족들을 부담스러워한다. 이러한 그에게 아내의 임신소식은 그를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아내는 낙태를 결심하고 그에게 아이와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이혼을 생각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극단적인 별거를 한다. 여성에게 출산은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인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로서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입장은 결국 그녀가 낙태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등의 갈등에서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에코부머세대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지태는 낙태를 반대하며 이혼을 통보하고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 내린다. 그 두 사람은 한동안 분리된 상태로 지내면서 가족 구성원과 문제를 상의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철저히 혼자 고민한다.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그는 낙태로 인한 대립된 관계에서 아내에 대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것은 서로가 사랑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된다.

4.1.4 에코부머세대 서지안 28세

서지안은 서태수의 장녀이다. 그녀는 집안 사정으로 미술공부를 포기하고 명문대학들 나와서 대기업 정직원이 목표인 1등 인턴사원이다. 하지만 정직원의 꿈은 낙하산 인사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좌절된다. 실업으로 인한 고통과 좌절은 재벌 2세인 최도경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신분 격차에 대한 분노로 표현된다. 어머니의 거짓말로 재벌가의 가짜 딸로 신분상승이 됐다가 거짓이 밝혀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하는 굴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가족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회피하게 만든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는 자살시도로 자신을 포기한다. 가족과 사회와의 괴리에서 그녀는 친구의 도움으로 그녀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든 역경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다시 자

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목공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립능력을 얻는다. 자존감의 회복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가족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1.5 에코부머세대 서지수 28세

서지수는 서태수의 이란성 쌍둥이 중 죽은 동생을 대신해서 주워서 몰래 키운 아이이다. 그녀는 언니의 뜻에 따라서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전문대 치위생과에 입학한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니던 치과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한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좋아하는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자 노력한다. 그녀는 우연히 만난 선우혁을 좋아하게 되어 몰래 따라다니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캐릭터이다. 장남과 장녀로서의 책임감이나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배려는 나타나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녀는 의지하던 언니가 재벌가의 딸로 들어가는 것에 반대했다. 자신이 재벌가의 진짜 딸이었다는 것을 언니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감정의 변화가 시작된다. 주변사람들이 언니만 챙기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언니를 좋아한다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녀에게 부정적인 정서로 작용하였다. 그녀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반발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한다.

4.1.5 에코부머세대 이후 서지호 24세

서지호는 군대를 다녀왔고 학위보다는 자신의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고 노력하지만 집에서는 삼수생으로 알고 있다. 가족들에게 속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는 정규직이나 사회적 신분을 추구하지 않고 판매원에서 클럽 아르바이트에 이르기까지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꿈인 그는 형의 결혼으로 가족구성원들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살아간다. 비록 작은 원룸이지만 그의 삶은 자기 주도적이며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운 독립된 생활을 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전통주의 핵가족구조에서 나타난 가족관계

해체와 회복과정을 <황금빛 내인생>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은 아버지에 대한 지지도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지지도의 상실은 그의 경제적 무능력함, 과도한 책임감, 경제력, 도덕성, 신뢰도의 문제이다. 베이비부머세대인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희생하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일방적인 방향의 관계였으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에코부머세대인 자식들에게는 피해의식으로 작용했다. 에코부머세대 이후는 더 이상 베이비부머세대에서 원하는 행복의 기준인 학위와 명예, 권력의 세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세대 간의 간극을 만들어 내며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관계로 해체시킨다. 이 드라마에서 나타난 가족해체는 가족구성원들 모두에 대한 관계단절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단절은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게 한다. 베이비부머세대인 부모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동안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자신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추구하였다. 에코부머세대나 그 이후세대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함으로써 주체성을 찾았다. 이러한 개인의 자존감과 주체성 회복은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성을 회복한 개인은 서로 책임감이나 부담감으로 얽혀있던 관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로 다가간다. 이제는 일방향이 아닌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쌍방향적 관계로 재탄생된다. 가족 관계회복은 개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먼저 정립된 후 이루어지는 쌍방향성 관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 [1] M. H. Lee. (2013). Reorganization of Family-related Analytical Concepts: From Familyism to Family-centered. *Social Thought and Culture*, 28, 360-378.
- [2] Y. H. Kwon. (2013). Social Philosophical Reflection on Familyism in Korea. *Society and Philosophy*, 28, 203-232.
- [3] H. H. Lee. (2017). Influential Factor of Life Satisfaction based on Types of Baby Boomer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19-29.
- [4] J. Min. (2010). What to dominate governmental organizations Nathaniel Millet generation, who are they?. *SAPA News & Platform*, 16(2), 5-8.

- [5] J. W. Lee, S. G. Oh & E. J. Kim. (2010). Perspective on Future Social Change through Comparison of Consciousness Structure between Generations. 3, Focusing on Consciousness and Values about Family and Family Lif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13-225.
- [6] Y. H. Kim & S. E. Lim. (2011). A Critical Review on Definition of the Baby-boom years, Labor market shonks,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fe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2), 36-59.
- [7] H. K. Lee. (1998). Psychological Impact of Economic Depression. *Korean Psydhological Association*, 4(1), 3-13.
- [8] S. Y. Park & S. L. Hong. (2018). The Effect of Worker' Consumption Patterns on Depression : Focusing on Baby-boom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439-452
- [9] S. H. Lim. (2015). Study on the Impact of Perception towards Youth Economic Education on Personal Traits in an Age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1), 57-62.
- [10] M. S. Park, J. K. Chang & S. H. Son. (2017). Online and Offline 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547-555.
- [11] Y. K. Hwang & E. Y. Hong. (2018). The Current Status of Life and Happiness of Out of School You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57-64.
- [12] Donga news. (2012). 08.03(fri)0 Press release.
- [13] K. H. Kim, S. O. Yoon & J. E. Jo. (200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Digital Generation, *Information policy*, 16(2), 140-162.
- [14] M. Y. Lee. (2018). Joynews.inew of Korea Home page.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200&g_serial=1105084, Jun 29
- [15] D. H. Lee. (2003). Polymer Society of Korea Home page, <http://www.polymer.or.kr>. July 14.

김 준(Joon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 2009년 2월 :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마케팅, 인사조직

· E-Mail : sulsong3@hanmail.net